

사우디 ‘비전 2030’ 실행 본격화와 시사점

서상현 수석연구원, 철강연구센터 (unisa21@posri.re.kr)

목차

1. 사우디 경제와 ‘비전 2030’
2. ‘비전 2030’ 실행 전략(NIDLP)과 주요국 협력현황
3. 한-사우디 ‘비전 2030’ 중점 협력 분야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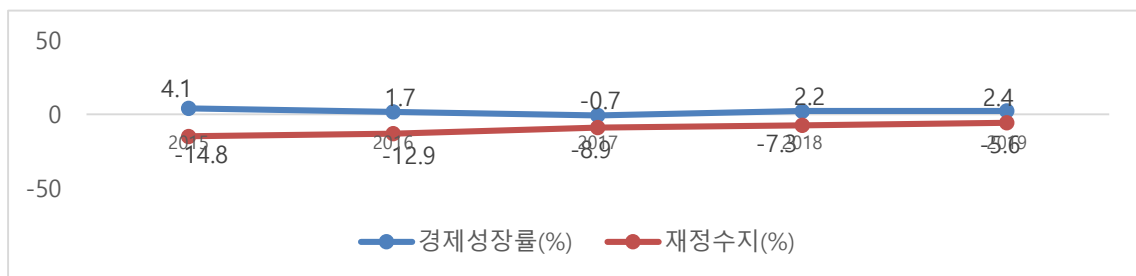
- 최근 사우디는 유가 상승과 非석유 산업 부문 호조로 경제환경이 개선되고 '비전 2030' 실행이 본격화되는 등 그룹사의 사업 참여기회가 증가할 전망
 - 국제유가는 최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2019년 하반기에는 U\$75 b/d에 달할 전망
 - 사우디 경제는 2017년 △0.7% 성장을 보였으나 유가 상승으로 지난해 2.2%, 올해는 2.4%의 성장이 전망되는 등 점차 개선 중임
- 사우디는 지나친 오일 의존 경제로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2016년 10월 '비전 2030' 선언을 통해 탈석유산업을 추진하고 있음
 - '비전 2030'은 현재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유산업 분야를 줄이고 대신 제조업, 관광, 보건 의료, 건설 등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임
 - 이를 위해 민간 및 해외자금 투자 유치로 광업, 화학/정유, 제조업, 도소매업, 관광, 금융, 건설업, 보건 등 8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외의 정치, 경제 환경 변화로 '비전 2030' 실행은 미진한 상황임
- 이에 사우디는 '19.1.28일 '비전 2030'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산업발전 및 물류 프로그램(NIDLP)을 발표하며 실행의지를 높이고 있음
 - NIDLP*는 광물 자원, 제조업, 에너지, 물류 등 4개 분야를 중점 분야로 꼽았고 구체적인 투자 기회도 제시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
 - 투자 기회는 1.7조 리얄(약 450조원)에 달하며, NIDLP 발표와 관련하여 66개 사업의 MOU 중 37개 사업이 국내외 기업과 조인되었음
- 한-사우디 정부는 2017년 장관급의 '비전 2030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전 2030' 관련 사업에 협력하기로 함
 - 1차회의는 2017.10월에 개최되어 5대 분야 40여 개의 협력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논의하였고, 2019년 4월 3일에 개최된 2차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일부 협력사업의 MOU를 체결함
- '비전 2030'은 국내기업들의 사우디 사업확대 기회로, 진출 시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을 우선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에너지분야는 원자력발전 및 태양광 관련 사업, 보건/생명과학은 바이오 제약산업, 인프라는 메트로 건설 사업 등이 유망
 - 또한 아람코가 PIF로부터 SABIC을 인수하는 등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아람코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확보 위한 노력도 필요

1. 사우디 경제와 '비전 2030'

□ 최근 사우디는 국제유가 상승 및 非석유산업 분야 경제의 호조로 경제 환경이 개선 중임

- 사우디 경제의 핵심인 국제유가는 산유량 감축 등으로 2018년 배럴당 U\$70대를 유지하였고 2019년에도 5월 말 현재 U\$70을 유지 중
 - 특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주요 원유 생산국가들의 원유 수출이 제한되어 국제유가는 당분간 상승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 모건 스탠리는 2019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U\$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브렌트유 기준)
- 사우디는 2015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충격으로 2016년 1.7%, 2017년 △0.7%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침체를 겪었음
 - 2018년에는 유가 회복에 따라 2.2%의 성장을 보였고, 2019년에는 2.4%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IMF, '19.2)
 - 유가 상승으로 재정적자도, 2015년 △14.8%, 2016년 △12.9%에서 2017년 △8.9%, 2018년 △7.3% 그리고 2019년에는 △5.6%로 개선될 전망

〈사우디 경제현황 및 전망〉



출처: IMF, 2019.2

□ 그러나 사우디 경제는 지나친 오일 의존성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 석유부문은 사우디 GDP의 40%, 재정수입의 60% 이상,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
 - 이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제성장이 크게 영향을 받음

- 또한 오일산업에 기반한 과도한 공공부문 비중은 정부 재정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사우디는 국영 석유기업(ARAMCO) 등 국영기업 비중이 높은 반면, 민간 부문 기업들의 비중은 낮은 편임(민간기업 비중 45%, 2016년 기준)
 - 맥킨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 취업인구의 약 70%가 공공부문에 취업한 것으로 추정
- 이처럼 주요 경제성과 미진과 28.7%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사우디는 2016. 10월 '비전 2030'을 선포함
 - '비전 2030'은 현재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유산업 분야를 줄이고 대신 제조업, 관광, 보건의료, 건설 등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임
 - 이를 위해 U\$4조의 민간 및 해외자금 투자를 유치하여 광업, 화학/정유, 제조업, 도소매업, 관광, 금융, 건설업, 보건 등 8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2. '비전 2030' 실행 전략(NIDLP)과 주요국 협력현황

- 2016년 탈석유산업 등 산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비전 2030'을 선포했지만 사우디 内の 정치, 경제불안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지난해 10월 발생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에 빈 살만 왕세자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비전 2030'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독일 지멘스가 카슈끄지 피살 비판에 동참하였고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사우디 투자를 미루고 있음
 - 또한 독일정부는 사우디에 대한 무기판매를 금지했고 미국도 카슈끄지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사우디 인사들의 입국금지 등 제재를 가하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 28일 '비전 2030'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산업발전 및 물류 프로그램(NIDLP)*을 발표함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
 - NIDLP는 광물 자원, 제조업, 에너지, 물류 등 4개 분야를 중점 분야로 꼽았으며 구체적인 투자 기회도 포함하고 있음

- NIDLP에서는 알루미늄 제품 제조, 광물 탐사 차량 부품, 제네릭 약품 제조, 항만 운영,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품 제조 등 80개 항목의 각 투자 기회에 약 30개 정부 부서가 대응하고 있음

〈NIDLP의 중점 사업 분야〉

분야	투자기회	중점 분야
광업	10개	구리, 티타늄, 시멘트, 알루미늄, 금, 아연, 철, 실리콘, 세라믹, 인, 소듐, 유리
제조업	29개	자동차, 제약 산업, 화학, 수산 양식, 의료, 기계 제품, 항공기 산업, 해수 담수화, 식품 가공, 방산업
물류	7개	물류 허브화를 위한 인프라 및 육해공 수송 네트워크의 발전
에너지	16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형태의 다양화. 또한 국내 생산, 고용 창출 도모를 위한 지역 발전 도모

출처: 주요 언론 정리

- 투자 기회는 1.7조 리얄(약 450조원)에 달하며, 2030년까지 GDP를 U\$1.2조로 끌어 올려 16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 또한 2030년까지 1조 리얄의 비석유 부문 수출·재수출에 연결하기 위한 물류 시스템도 함께 발전시킬 예정임
- NIDLP 발표와 관련하여 66개 사업의 MOU 중 37개 사업이 국내외 기업과 조인되었음
 - 미국의 다우 케미칼을 비롯해 IBM, 프랑스의 탈레스 등 사우디 시장에 기(既)진출한 서구 기업들이 주요 기업 목록에 이름을 올림
 - 또한 사우디 남부 지간의 석유 화학 플랜트 건설을 담당하는 중국의 팬-아시아 (Pan-Asia), 담맘 항구를 운영하는 싱가포르 PSA 인터내셔널 등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 사우디는 자국에 비판적인 유럽과 미국 대신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둠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올해 2월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함
 - 중국과는 일대일로를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선언하고 전자상거래 등 하이테크 분야 협력 관계 강화를 시도함
 - 인도와는 인프라, 관광, 주택, 통신 등 투자 증대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2년 내 U\$1000억 이상 투자 기회 모색
 - 파키스탄과는 석유화학 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U\$200억, 차관 U\$60억을 제공하기로 함

〈사우디-아시아 주요국 협력 분야〉

국가	사우디 진출 전략	중점협력 분야
일본	제조업 기술과 자본을 무기로 관-민이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대응	제조업,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인프라, 농식품, 중소기업, 문화/교육, 금융
인도	에너지 확보 및 인프라 통신분야 협력 주도	인프라, 관광, 주택, 통신 등
중국	막대한 원유 구매력, 자본력 활용,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	IT 및 IoT, 인프라, 에너지

출처: 주요 언론 정리

- 이처럼 사우디가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나선 이유는 카슈끄지 사태 이후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 소원 등으로 협력 대체성이 필요했기 때문임
 - 또한 '비전 2030'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실질적인 투자나 협력이 가능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음
 - 유럽과 미국 등의 기업들은 카슈끄지 사태 이후 사우디에 대한 투자나 진출을 미루고 있는 반면,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3. 한-사우디 '비전 2030' 중점 협력 분야

- 한국은 '17.10월 제1차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위원회'에 이어 '19. 4월 2차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우디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1차회의에서 한국은 사우디와 5대 분야 40여 개의 협력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논의하여 일부 사업은 현재 실행 중
 - 5대 주요 분야로는 ❶ 에너지/제조, ❷ 스마트 인프라/디지털화, ❸ 역량강화, ❹ 보건/생명과학, ❺ 중소기업/투자 분야 등임

〈한-사우디 '비전 2030' 주요 협력 분야〉

분야	해당산업	프로젝트수
에너지/제조	조선,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원자력, 방산	12개
스마트 인프라/디지털화	전자정부, 로봇, 정보통신망,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시티	13개
역량 강화	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우디 內 직업훈련, 국책연구소 협력	4개
보건/생명과학	성형외과, 제약산업, 병원정보화, 건강보험	4개
중소기업/투자	중소기업 JV, 창업진흥, 정책 컨설팅, 기술지도	7개

출처: 주요 언론자료 정리

○ 2차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협력사업 도출을 위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양해각서 체결 등 구체적 성과도 도출함

- 한-사우디 양측은 자동차, 건강보험 시스템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스마트 시티 건설, 공항 건설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함
-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사우디 양측 기업 간 협력 양해각서(MOU) 등 4건이 체결되는 등 B2B 분야에서 성과 도출

*삼성 엔지니어링, PanGen 바이오테크, Genius 등 기업들이 사우디 바이오 보건 분야 기업들과 의약품제조시설 건립 등에 관한 MOU, 업무협약, 계약 등 체결

○ 특히 사우디는 비전 2030 협력 이행을 전담할 '비전 오피스'(VRO, Vision Realization Office)를 서울에 개소하기로 함

- 향후 비전 오피스를 중심으로 협력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애로를 파악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사우디에 KDI와 유사한 사우디 전략개발센터(CSD) 설립 지원 예정

□ '비전 2030' 분야 협력과 함께 한국 최대 해외건설시장 중 하나인 사우디의 건설 인프라 발주 증가도 주목해야 함

○ 2018년 건설 인프라 시장은 약 U\$410억 수준이었으며 2021년에는 U\$466억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프로젝트 유망 분야는 전력과 철도 분야로, 전력의 경우 2018년 기준 발주금액이 약 U\$700억에 달했으며 철도가 U\$220억으로 뒤를 이었음
- 이 밖에 도시개발 분야가 U\$175억, 수처리가 약 U\$70억을 차지함

○ 사우디가 최근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로 2030년까지 58.7GW 개발 계획을 발표함

- 최근 REPDO(Renewable Energy Project Development Office)가 발표한 Round 2* 에 따르면, 2023년까지 27.3GW, 2030년까지 58.7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개발할 계획 *Round 1은 2016년 발표
- 2019년에는 총 12개(태양광 11개, 풍력 1개), 3.075GW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계획 中

4. 시사점

□ 국내기업들의 사우디 진출 시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을 우선 검토할 필요성 있음

- 크게 5개 분야 40여 개 사업이 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며 국내기업들의 참여 가능 사업이 다수 포함
 - 첫째, 에너지/제조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분야와 자동차, 조선 등에서 사업 참여 가능
 - 둘째, 스마트 인프라/디지털 분야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과 스마트 시티 등에서 사업 가능성 점검 필요
 - 셋째, 보건/생명과학 분야에서는 ICT와 결합한 병원건립 프로젝트와 바이오·생명과학 분야 진출도 가능
 - 넷째, 최근 한-사우디간 논의되고 있는 방산분야도 유망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 이 밖에 최근 유가 상승에 힘입어 건설 인프라 발주가 증대함에 따라 신도시 및 도심전철 등 분야에서 국내사들의 사업 참여를 모색할 수 있음
 - 이미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는 6개 노선 메트로 건설 사업이 시행 중이며 향후 메카, 제다, 메디나 등에도 메트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음
 - 특히 Qiddiya, Red Sea, NEOM 등 수백억 달러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사업자 선정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어 다수의 국내사 참여 기회 전망
- 중기적으로는 '비전 2030'에 참여하는 국내기업 및 일본, 중국 등 외국계 기업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및 J/V설립에 적극 참여 필요
 -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그리드 사업, 발주 규모가 큰 메트로 사업 등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삼성물산은 프랑스 Alstom, 스페인의 FCC group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U\$78억 규모의 리야드 메트로 건설을 수주한 경험이 있음

□ 그러나 국제유가의 불확실성, 성장정체, 자국민 우선주의(Saudization) 등 사업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사우디 진출 시 신중한 접근 필요

- '비전 2030'은 실행 전략들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외국인자금 유입 부진으로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지연되고 있음

- 또한 사우디 사업 수행 시 인력의 75%를 현지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자국민 우선주의는 고비용 저생산성 문제로 사업수행의 걸림돌 중 하나임
- 이 밖에 사우디 주변국들인 이란, 시리아, 예멘 등의 정치적 불안정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진출 고려 시 적극 분석해야 함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홈페이지]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9”(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WORLD)

Saudi Vision 2030(https://vision2030.gov.sa/en/NIDLDP)

[언론]

매일경제, “경제구조 바꾸려는 사우디, '산업화 롤모델' 한국과 경험 강화”, 2019.4.3

Verocy, “Saudi Arabia Launches the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 2019.1.29

Vision Realization Programs,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 - Investment Opportunities”, 日・サウジ・ビジョンオフィス・リヤド, January 2019

[전문 자료]

BMI, “Saudi Arabia Infrastructure Report - Q2 2019”, 2019